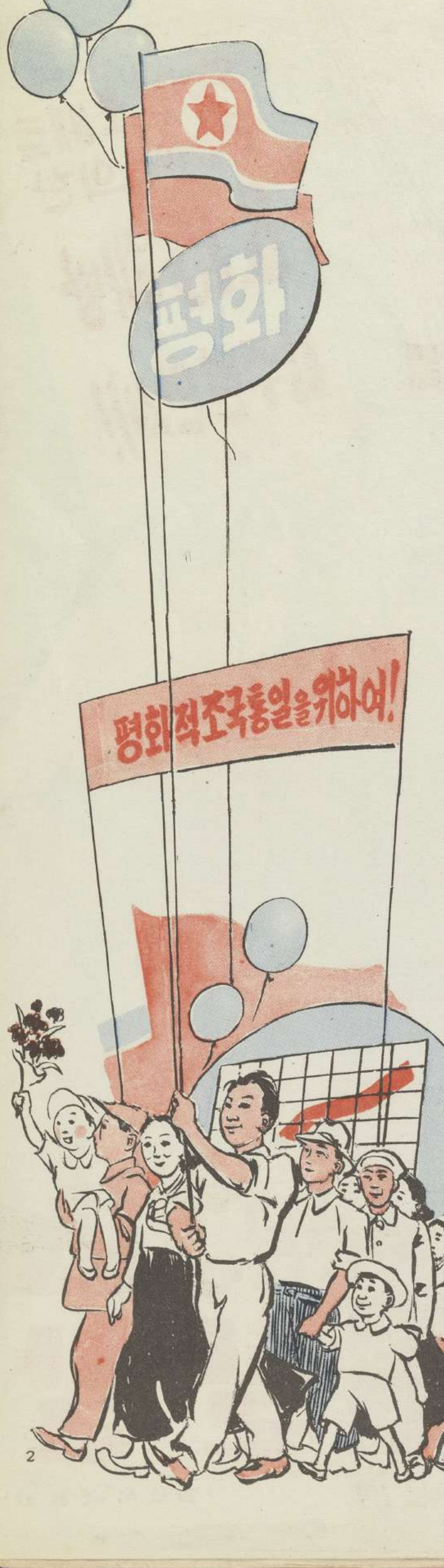
3 - AUG - 9
Copy ______ 1960



나도 하려던 말

유 항림

어떤 사람은 경식이를 가리켜 말을 뜨적뜨적 하는 품이 점잖을 빼기 좋아하는 친구라고 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은 마음이 다급해져서 서두르면 의례 말이 더듬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늦장을 부려서 천천히 이야기하는게 버릇이다.

그러한 경식이가 창선네 방문을 열어잡으며 덤볐다.

『차 창선이 호 호 호가 나 나왔네. 또 그 그게 나왔어………』

『뭐가 나왔어?』

며칠 동안 감기로 누워 있던 창선이는 싱글벙글 웃어가며 덤비는 경식이를 물끄럼히 쳐다보다가 그의 기뻐하는 얼굴에서 무언가를 감축하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알았네. 호호호라면………녀자의 웃음 말인가? 옥희 동무가 임자더러 반갑게 웃더란 말이지? 약혼한 사이에 그맛 일로 뭐 그렇게 좋아서 덤비나?』

『그 그만큼 조 좋은거야. 저 호 호………며 몇 호 하는 것 말야.』

『가만 있자 『몇호』라……알았네. 채'권 추첨에서 임자의 채'권 번호가 당선됐다는 말인가? 그럼 한턱 내게나.』

『아 안야 그 그보다 더 조 좋은거야.』

혀 아래서는 뱅뱅 도는 말이 혀에 오르지를 않아서 안타까울 때 말더듬이들이 흔히 하는 버릇대로 경식이는 한참 동안 몽짓 손짓을 한 끝에야 겨우

『내 내각 결정이 나왔어 이 인민생활………』하고는 다시 더듬었다.

『알았네.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내각 결정이 나왔다는 말이로구만! 52년도에 나온거지만, 재해 농민들에게 식량을 대여할 데 대한 내각 결정 제40호라든지, 로동자 사무원의 가족들에게 식량 공급을 증가할 데 관한 내각 결정 제160호 같은 것 말이지?!』

경식이는 그렇다고 고개만 끄덕했을 뿐 새로 나온 내각 결정의 내용은 아직도 혀에 오르지가 않아서 쩔쩔 맸다. 창선이도 더듬는 그의 입술만 쳐다보면서 안타까워졌다. 그래서 그의 말을 끌어내 보려고 다시 꼽아 내렸다.

『입원환자의 치료비와 약 값을 무료로 하며 주민들에게 의료상 방조를 주기로 한 내각 결정 제203호 같은것 말이지?!』

경식이는 다시 고개만 끄덕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들에게 수산물 공급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한 내각 결정 제45호라든지,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가급금을 지불할 데 관한 내각 결정 제32호도 그렇고 근로 소득세를 30%나 인하하고 수도 사용료와 통근 뻐쓰 료금을 대폭 인하하는 등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대책에 관한 내각 결정 제71호도 그렇지. 그뿐인가 직접 인민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내각 결정이 그 밖에도 참 많지……임자가 내각 결정이란 말이 미처 혀에 돌지 않았을 때 『호』라는 말부터 나온것도 무리가 아닌것 같네. 내각 결정의 매호가 그 어느거나 막론하고 직접 간접으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닌게 없으니까. 전후에만도 네 차례나 물'가를 인하한 것만 보아도 알 일이구………』

좋은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전해 주려고 덤비며 달려왔던 경식의 마음은 창선이가 누운채 이렇게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는 가운데 차츰 침착해 졌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반쯤은 그가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진정되자 점잖을 빼다는 평조차 들어오는 경식의 그 느릿느릿한 말투도 회복되였다.

『창선이 임자 말이 참 옳네. 그런데 이번에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내각 결정이 둘씩이나 한꺼번에 나왔네.』

그리하여 독자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각 결정 제75호와 제76호의 내용을 전해주었다. 결식이가 운만 떼는 걸 들고도 노상 짐작지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창선이는 너무나 반갑고 기쁜 마음에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임금이 평균 35%나 오르고 게다가 물'가를 또 대폭 인하한다고! 얼마나 고마운 우리 당과 정부의 시책인가……더군다나 임자는 이제 새 살림을 꾸릴 판인데 천 값도 고무신 값도 법랑철기 값도 그밖의 것도 모두 내렸으니 얼마나 좋겠나……옥희 동무한데도 알리게.』

『옥희 동무는 벌써 알고 있어………』

『이 내각 결정들이 감격과 기쁨을 자아내게 하는 건 이제부터 그만큼 더 잘 살게 됐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든지 더 행복스럽게 살 수 있게 하며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능력도 있는 우리 당과 정부의 시책의 한 표현이라는데 더 큰 의의가 있는거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활이 향상될것인가 하는 것은 전체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더 일을 잘 하는가 하는 데 달려있네. 그렇지 않은가?』

이 말에 경식이는 말이 굳은 사람의 버릇대로 간단히 대답했다.

『그게 바로 나도 하려던 말이네』

송용남 그림

「예산 없는 예산」

신 흥순

어떤 사람이 낡은 집을 수리해 보려고 떨어진 벽에다 진흙을 바르는데 옹이대가 썩어서 벽 전체가 우수수 떨어졌다. 그 바람에 기둥까지 삐뚜러져서 까딱하다가는 덮을 맞을 지경이다. 그래서 다 썩어진 기둥뿌리를 바로 세우려고 하다가 이번엔 또 대들보가 부러져 집이 그만 올칵 주저앉어 버렸다.

남조선 괴뢰정부의 예산이란게 똑 이 모양이다. 이쪽을 메꾸자니 저쪽이 텅비고 하나를 꾸어매면 둘 셋이 구멍이 난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국가 세입은 무턱인데다가 세출만은 안할 수 없으니 『예산 없는 예산』이라 그럴 수 밖에……

그래 자유당 위원들이 경무대를 찾아가서 리 승만이와 묘안을 강구하는데 그 꼴이 가관이다.

—대통령 각하! 원판 국가 재원이 턱이 없으니 군사비를 좀 삭감허는 것이 어떨까요?

—뭐? 군사비를?

—예 그게 국가 예산의 60%를 차지허다 보니 다른 항목이 그만 뺑이 날 수 밖에요.

—아니 군비를 몇갑절 더 확장해야 될 판인데 군사비를 삭감허다니?

군대를 늘구자면 무기가 있어야지 미국서 무기를 안사 드리구 북진이 되나?

—그럼 적자 예산을 무슨 수로 메꾸겠습니까?

—원 이런 돌 대가리 봤나 국채를 더 발행하면 될게 아닌가?

—예 그래서 산업 부흥 채권 50억환허구 애국 복권 모두 해서 도합 67억환을 발행하기로 했으나 그래도 태반이 부족이 돼서 허는 말씀 올시다.

—그럼 거기다 한 20억환 더 발행허면 그만 아닌가?

—그러나 지난 6월 1일로 만기가 된 전국 공채 20억환두 민간에 반환하지 못해서 지금 항간의 비난이 자심헌데 더 발행한다면 백성들의 반대가 여간 아닐것 같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갚아야 할 그 20억환두 더 칠가 해 버리란 말야! 그러면 모두 얼만가?

—107억환이 올시다

—음 그래 그래 그렇게만 허면 적자 예산은 메꾸겠지?

—예 그러나 그걸 다 민간에서 걷어들이자면 좀……

—허허 경찰이 있지 않나? 지난번 처럼 매호당 할당을 해서 기름짜듯 받아 내야지.

—그리구 이번 발표하신 『공무원 대우 개선』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념출하랍니까?

—흠 그건 다 대책이 있네.

—어떤 대책입니까?

—그래 공무원을 한 절반쯤 주릴 작정이야.

—또 인원 축숩니까?

—재정이 나올데가 있나? 그러니까 둘이 할 일을 혼자 허구 그대신 월급을 더 주면 될게 아닌가 머리를 쓰란 말야! 머리를……

독장사 심수 놓듯 제딴엔 기발적인 묘안을 내놓긴 했으나 그 묘안은 총체로 통과되지 않아 회계년도가 다 지나도록 아직도 이 『예산 없는 예산』은 심의가 끝날줄을 모르고 있다.

왜 당신 마음대로 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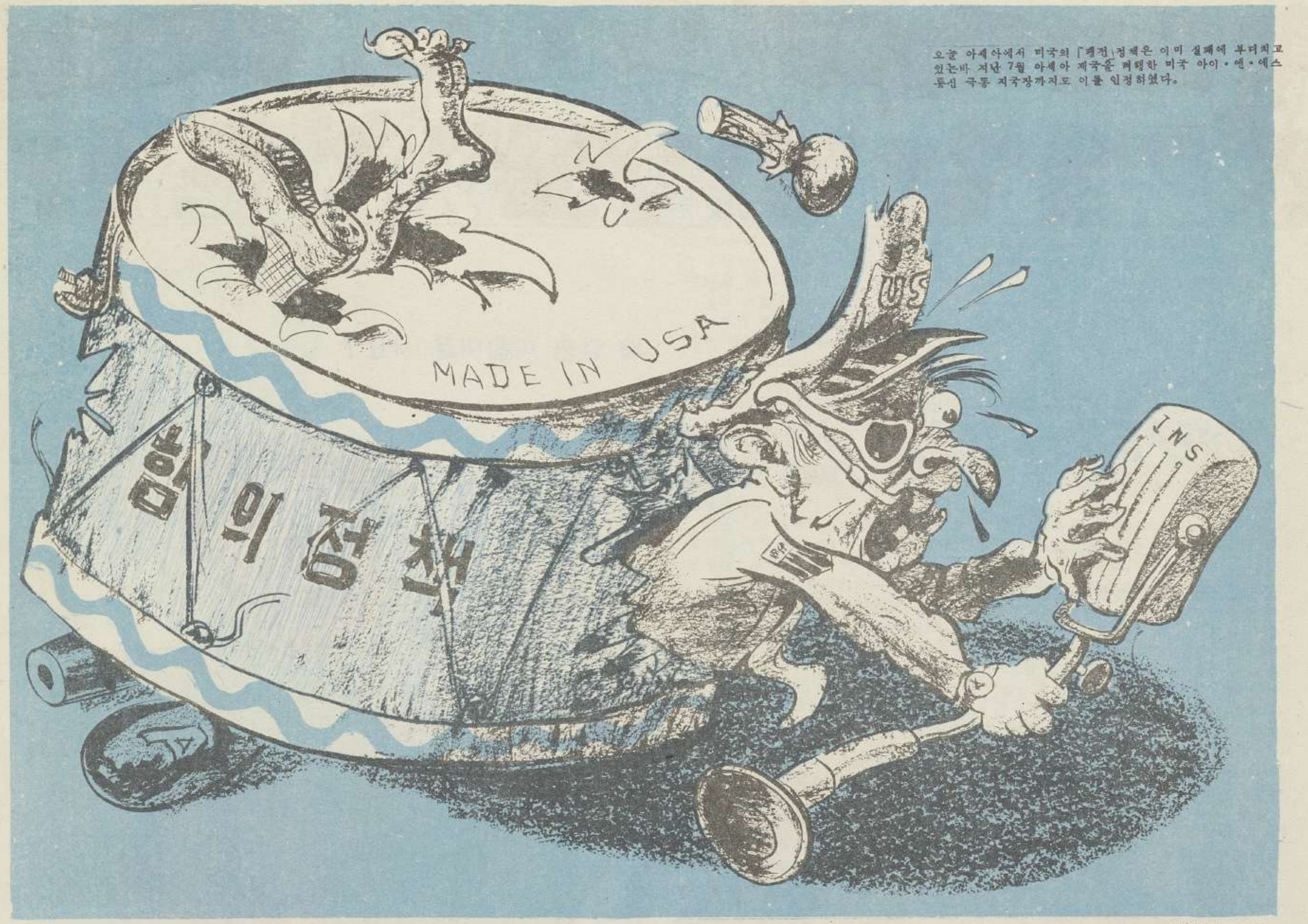
—당신은 왜 내것만 샀어요?

—당신은 왜 내것만 사우?

백인균 그림

전체 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성으로 3개년 계획을 많은 부문에서 성과적으로 수행한 결과 그리고 형제 국가로부터의 원조의 결과 우리에게는 인민들의 생활을 급격히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었다.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최고 목표로 삼고 있는 공화국 정부는 이번에도 물가를 대폭 인하하고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평균 35%나 인상하였다.

괴로운 일



백인균 그림

미 지배층—이놈아! 너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면 어떻거느냐!

전쟁 소동의 후과

오 흥택

부산 부근에 있는 한 사립 농업 대학—교직원 회의는 벌써 두시간 이상 진행되여 모두 매우 지친 표정이다。

부자연한 침묵을 깨뜨리고 교장이 또다시 말을 계속했다。

『아니 그래도 명색이 대학인데 이런 형편이구서야 사회적으로 명목이 서우— 납입금은 절반도 안물어 오고 학생들은 제멋대로 놀구…… 그래 학교문을 닫아 치우잔 말이우 왜들 말이 없소?』

『학교 재정 형편도 형편이지만 학생 없는 학교가 무슨 학교질 한단말이우』

아까부터 아무말 없이 담배만 멋없이 피우고 있던 선생이 이렇게 툭명스럽게 대답했다。

『아니 그게 무슨 당치 않은 소리요。 학생은 모집하면 되지 않소。 우선 학생들의 납입금을 받아야지 학교가 유지될 것 아니요。요새 학생들이 규률을 도무지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싸다니니 선생들께 책임이 없단 말이우』

교장은 음성을 높여 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툭명스러운 대답만 하던 선생은 그제야 일어서면서 흥분된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이런 난리판에 학생을 어데가 모집한단 말이오。남조선 천지에 학생이 어데 있단 말이오。젊은이란 젊은이는 모주리 군대로 끌어가는 판에 령감쟁이들을 학생으로 모집한단 말이우。 학생을 모집한다 손 치드라도 학기에 3만환 돈을 어떻게 받아 낸단 말이우』

선생은 말을 계속하려다가 그만두고 제자리에 앉아 또 담배만 뻑뻑 빨고 있다。

다른 선생들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듯이 모두 제멋대로 앉아 있다。

손수건으로 안경을 닦는 사람, 손톱을 깎는 사람, 담배 연기로 동그람이를 그리는 사람, 귀, 구멍을 쑤시는 사람…… 제각기 딴 생각에 딴 동작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장만은 초조해서 혼자 떠들어대고 있다。

『아니 어떻게 할 셈이우。학교가 많은 돈을 빚 졌는데 우선 채무야 갚아야 할 것 아니우! 래일부터 학생 납입금 받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요。 납입금을 받지 못하면 선생들의 월급도 못 지불합니다』

『언제는 월급을 제대로 받아 봤나요』

손톱을 깎고 있던 선생이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때 밖에서 학생들이 와짝 지껄이는 소리가 들려왔다。회의에는 관심이 없던 선생들도 모두들 일어서 밖을 내다보고 있다。

이윽고 20여 명 학생들이 교직원실로 밀려 들어왔다。

교장이 눈을 붉히며 『모두들 규률이 없이 회의 중에 함부로 뛰여들며 이 야단이야』하고 호통을 쳤다。

『교장 선생님 우리들은 딱한 사정을 의논하러 왔습니다。 선생님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학생 징집 연기제를 폐지한다고 야단인 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학교 학생 8할이나 군대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농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보다도 조선 사람끼리 무엇 때문에 또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까? 농촌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데 우선 죽는 사람, 굶는 사람을 살여야지 전쟁은 또 무슨 전쟁이란 말입니까? 선생님들 대답해 주십시요』

『불온한 말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거야』 교장이 소리를 질렀다。

『불온하다구만 몰아치지 마시구 알겠끔 이야기해 주시요。우리들 학생들로서는 무엇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군대로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두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무거운 침묵이 계속된다。

담배만 피우고 있던 선생이 일어 섰다。

『나는 대답할 말이 없소。 나도 래일부터 일자리를 구하며 부두'가에나 나가 봐야겠소 문교부 장관도 학생 징집 연기제가 폐지되면 시끄러운 사립 대학들이 자동적으로 정리된다고 했지요。 어짜피 폐쇄될 것, 일찍암치 나는 그만 두겠소』

선생은 휭하니 나가버렸다。 뒤를 따라 또 한 선생이 아무말 없이 나가버렸다。또한 선생은『내게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할 자유가 없소』하고 나가버리자 선생들은 하나 둘씩 다 나가고 안타깝게 대답을 기다리던 학생들도 나가버렸다。

어둠 컴컴한 방에 교장만이 홀로 남아 있다。

『전쟁을 한다고 떠드는 판에 학교가 망한다。전쟁! 그래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겠다는건지 나두 모를 일이야』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교장도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난타령

신 흥순

얼씨구 드룬다
저얼씨구 드루신다

풍년 풍년이 들었네
무슨 풍년이 들었나
조국의 땅 남조선
승만이 통치 십여년에
난 풍년 들었네

무슨 난이 들었나
쌀두나 없어 식량난
배가 고파 난이요
옷두나 없어 의복난
헐벗으니 난이요
집두 없어 주택난
방황히기 난이라
품바 품바 각설이
난이 많아 못살겠네

무슨 난이 또 있나
물두나 없어 수도난
목이 말라 난이요
땔게 없어 신탄난
벌벌 떨기 난이요
전기두 없어 등화난
캄캄해서 난이라
품바 품바 각설이
난이 많아 못살겠네

무슨 난이 또있나
아이들은 입학난
글못 배우니 난이요
청년들은 병역난
기합 받기 난이요
간데 온데 취직난
일자리 없어 난이라
품바 품바 각설이
난두 많아 못살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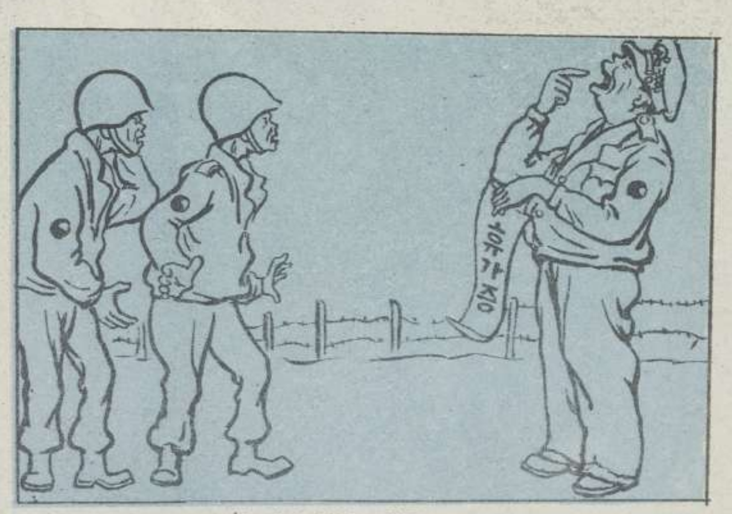
무슨 난이 또있나
병들면은 치료난
속수무책 난이요
거리거리 통행난
일못보니 난이요
수백까지 세금난
독촉받기 난이라
품바 품바 각설이
난두 많아 못살겠네

집에 들면 가—난
살아 가기가 곤—난
가지가지 생활난
난이 많아 못살겠네
누가 이꼴 만들었나
미국놈들 때문이요
승만이놈 탓이구나

이 원쑤놈 잡아다
삼재팔난 한데 묶어
태평양 깊은 물에
텀벙허구 처 넣사
품바 품바나 각설이
허리구 허리구 잘된다

모든 것은 뢰물로 통한다

입학하는데도……



휴가를 받는데도……

직업 소개에도……

대통령 선거에도……

리춘업 그림

미국의 상품 시장으로 되고 있는 남조선에서는 산업이 파괴되고 물가는 오르고 인민 생활은 령락되고 있다.

최영근 그림

리승만! — 우리 한국에서 미국의 잉여물자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팔리는 것도 나의 공로야!

보재기로 감싼 송곳

박 노을

—에구 좋아라 이렇게 고소할데라구야. 여보 그래 당신이 말 안하면 난 모를줄 알우? 그래 당신은 어떠허겠우? 응 여보?
—뭘 새벽부터 이 야단이여?
—향월이년 말에유 그래 경관들은 축첩 행위를 엄금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두…… 흥 이제야 싸지 싸!
—그래 뭘 어째란 말야?
—향월이년을 언제 내쫓느냐 말에유
—내쫓긴?
—경관들의 축첩을 엄금한다! 그래 이렇게 내무부장관의 시퍼런 지시가 있였는데두 그냔 첩년을 끼구 있겠단 말이유? 응?
—그래두 난 일 없어
—뭐라구요 왜? 왜? 왜?
마누라의 발악은 총을 쏘는것 같았으나 경관은 의연 태연자약。그도 그럴법이 『흥! 알긴 잘도 알았다 자식을 보며구 첩을 얻는 것은 일없단 말야!』
천행으로 믿었던 마누라의 우름보는 터지였다。
『아이구 내 팔자야 아이구 내 팔자야』

5월 15일 소위 제3기 대통령 선거 결과로 리 승만의 고립상태는 더욱 로골적으로 표현되였다。평화 통일을 지지하여 나서는 인민들의 기세는 한편 불'길같이 일어 번지고 있지 않는가?
민심 회유책 이것은 요즘 리 승만의 한 술책으로 되였다. 『경관들의 축첩 행위 금지책』도 소위 여기에서 나온 한 소행인 것이 틀림 없다。
그러나 가소롭게도 『어린애를 보기 위한 축첩행위는 차한에 부제함』—이라 하여 가뜩이나 애타고 초조하는 녀인네들을 울리고 있거니와 실은 그것만도 아니다。누구도 아닌 내무부장관 리 익흥 부처 간에 벌어졌던 한 장면을 보기로 하자
—여보! 미라인가 하는 그년의 집에두 이제는 발을 딱 끊우
—새벽부터 또 무슨 바가진구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구 하잖았우? 그런데 당신 손으로 그런 공문을 떼구 낭 부끄럽지도 않우?
—뭘 뭘 뭣땜에 그래?
—경관들부터 축첩행위를 엄금케 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뿌리채 없애야겠다구 하지 않었우?
—그래두 자식을 브려는거야 으릴 수도 없다고 했단 말요……
—거야 잘 했조
—그러나 당신두 너무 강짜를 하지말우。
—뭐 뭐 뭘요? 그래 내가 아들을 못낳단 말요? 딸을 못 낳단 말이요?
—그래두 고거 하나씩이야 간들간들해서 어디 마음이 놓이우 이왕 장관두 됐겠다。집안이 더 번성되게 할라면 한 타쓰쯤 으흐흐흐……
—아이구 뻔뻔물두 해라 당신들이 하는 짓은 알구두 남었어요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식인……
—노여워 마우 이런건 나 때문만두 아니라우 리 승만 대통령두 작은 애리쓰가 있다우

'두조각을 즐기는 신사들'

원 진관

아메리카 신사들은 두쪼각을 즐긴다
덩어리채 못삼키면
두쪼각으로

절반을 삼킬 수 만 있다면
나머지 절반은
으레히 차례진다는 것
방법은 신기하고
계획은 너무나 매혹적이구나
긴 두 팔을 벌며 들고
긴 두 다리를 뻗혀 디디고

『두 쪼각의 작전이다
이것은 세계 제패의 방편
동강이 쳐라! 두 쪼각으로
빵덩어리도 칼로 끊어서야 먹는법
체면은 가릴것 없다』고

조선은 두 쪼각으로
독일도 두 쪼각으로
월남도 두 쪼각으로

그리고 또 없느냐
근동에는
발칸 반도에는
아프리카 대륙에는
하늘과 또 바다에는

두 쪼각의 탐색대들은 떠나간다
대포와 땅크를 끄을고
쎄이버 86을 날리며

용감한 탐험가 제씨들이여
그렇듯 두 쪼각에 매혹되다간
나종엔 제몸마저 두 개로 쪼개리
목아지 몸덩어리 두 동강으로
팔 다리는 허리에서 떨어져 나가리

남조선 학생들의 처지

리 운봉

어렸을 때부터

영길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려 학교로 찾아갔다。
『우리 영길일 좀 찾아 주시우』
어머니는 소사에게 말했다。
『몇학년 무슨 반이요』
『2학년인데 반 이름은 무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소사가 물었다
『이번 사친회비를 얼마 물었소?』
『사친회비요? 5백환을 냈지요』
『허, 그러문 그 애두 우리 애하구 같은 반이겠구만』
『무슨 반인데요』
『거지반이지요』
소사는 서글픈 소리로 대꾸했다.
『거지반이라니요??』
어머니는 그 말이 리해되지 않았다。
『요즘 학생들을 가정 환경에 따라서 세반으로 갈랐는데 돈이 많은 집 아이들은 미국친 이름을 따서 나이롱반, 그보다 좀 못한 집 아이들은 비로드반, 그리구 돈이 없는 집 아이들은 거지반에 몰아 넣었답니다』
『아이들까지!! 이런 통분한 일이 어디 있소!』
『아이들 때부터 구박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할려는 거지요』

"사회생활과" 교과서

수원 중학교에서 있은 일이다.
3학년에서 학과가 끝난 다음 교장은 요즘 학생들의 사상 동태를 알아보려고 교실로 들어갔다,
『지금까지 선생들의 강의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할 문제들이 있으면 말하시오』
그러자 한 학생이 일어나 물었다。
『강의에 대한 의견이 아닌 것을 물어도 좋습니까?』
『무엇이오?』
『우리 조선 사람의 특징적인 성격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특정적인 성격? 그래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오?』
『우리 조선 사람은 임진왜란 때나 그밖에도 여러번 몇십배나 되는 외국 침략자들을 용감하게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조선 사람은 용감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아니래나』
학생들의 반항할 듯한 기세가 보이자 교장은 이렇게 대꾸했다。
『그러면 왜 "사회생활과" 교과서에는 "날씨가 따뜻하고 비교적 산이 많은 우리 반도는 우리 겨레들의 성격을 온순하게 하고 마음씨를 좁게 하였다. 이리하여 좁은 마음씨는 접쟁이로 변하고 남에게 의뢰하여 갈팡질팡하는 얼빠진 생각을 갖게 하였다"고 했습니까?』
『…………』
교장은 아무리해도 대답할 말을 찾아 내지 못했다。
그래서 학생이 말했다.
『그건 아마 남이 우리를 침략해도 우리가 반항하지 못하게 우리 조선 사람을 접쟁이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겠지요?』
그렇다。꿀을 꺼내기 위해서는 반항하는 꿀벌을 죽여야 하는 것처럼 리 승만 도배는 미제의 침략을 위해서 우리 조선 사람을 접쟁이로 만들며고 발악하고 있다。

속 상할 일

리 승만—내무부 장관! 국군 징집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내무부 장관—네, 대통령 각하! 지금 징집 중인데 자꾸 그놈들이 기피해서……
리 승만—기피한다구? 이런 죽일놈들이 어데 있느냐 그럼 학생 징집 연기령두 폐지할터이니 병무 해당자는 모주리 끌어내라, 그대신 재학중에 징집된 학생들은 병역 기간을 단축해 준다구 해라,

×

내무부 장관—대통령 각하! 학생들에게 병역 기간을 단축해 준다고 암만 선전을 해두 북한에서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데 무엇때문에 배움까지 버리구 군대에 들어가겠는가구 하면서 응하질 않습니다.

발악할 수록....

박승히 그림

……침은 제낯짝에

미국 합동 참모 본부 의장 래드포드를 위시한 미국 전쟁 상인들은 최근 더욱 빈번히 남조선에 드나들면서 조선에서의 긴장 상태를 일층 격화시키려고 발광적인 선동을 하고 있으나 이는 오직 세계 인민들의 조소를 받게 될 뿐이다。

리 승만—응하지 않는다구? 문교부 장관!
문교부 장관—네!
리 승만—학생놈들이 징집에 응하지 않는다는데 어째 아무런 대책도 없느냐 재학중에 징집된 자들은 군대에서 정규대학 수업 시간의 절반을 면접 수업한다구 선전하는 한편 학교에서 잡부금들을 대폭 인상하면 공부하기 곤난한 학생들은 앞을 다투어 입대할것 아니냐!

×

문교부 장관—대통령 각하! 지시대로 했습니다만 한놈도 거기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되려 잡부금 때문에 20%나 되는 학생이 퇴학하구 잡부금을 없애라구 각처에서 동맹 휴학을 해서 학교마다 문을 닫지 않으면 안되게 됐습니다。
리 승만—그래두 안된다구? 그럼 어떻거면 학생놈들을 끌어낸단 말이냐?! 내무부 장관! 이젠 할 수 없다。징집을 기피하는 놈은 현행범으로 모주리 감금하라! 모주리!…… 아이구 하늘이 다 노랗구나!

리영춘 그림

체육가—내스스로 원하여 체육가가 되였건만 내 원하지 않았던 실업자 신세가 될줄이야……

경관—저 음악가가 짜즈 음악을 하지 않고 약장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는 붉은 사상가일 것이다。

화가—내가 여기서 스켓취를 하는 것으로는 알지 마오 이게 바로 10년간 화가 생활해 온 결과에 얻은 내 처지요。

작가—나는 문학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정열이 있는건만 사실이나 또한 문학생활을 해도 살 수 없는 처지에 있는건만 사실이다。

연기자—우리들이 연기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미국"깽"들이 우리의 극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야……

공화국 북반부의 체육 및 예술 일'군들은 자기들이 달성한 빛나는 성과물을 가지고 조선 인민의 민족적 명절인 8·15 해방 11주년을 더욱 다채롭게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남반부의 진정한 체육 및 예술인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처지인 미제와 리승만 도배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한 갖은 천대와 곤궁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엎친데 덮치기

해충—당신은 우리 몇갑절을 먹는구만요.

백인균 그림

그들의 의리

김 동희

황 덕선 농민이 한 마을에 사는 백 첨지한테 "의리 없는 놈"이라고 욕을 먹은 데는 까닭이 있었다.

지난해 가을이였다. 해마다 벼 농사가 잘 되는 덕선 농민의 거문 논 닷마지기를 욱기낸 백 첨지는 이 지방『군수』질을 하는 큰 아들을 시켜 작간을 부렸다.

그건 해마다 있는『정부 매상곡』을 다른 해 보다도 배나 더 뺏아가게 함으로서 덕선 농민이 반대한 것을 구실로『불온 농민』이란 죄명을 뒤집어 씌웠던 것이다. 그리고는 경찰서에 끌려가서 십여일 간이나 구류를 살고 나온 덕선 농민을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 온 백 첨지는 정색하여 말했다.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짓인가……단단히 욕 볼번한 것을 내가 우리 군수 아들한테 부탁해서 빼 냈네……헌데 자네 같은 사람들에겐 농지 개혁의 취지상 토지 수득권을 취소한다니 어떻게 하겠나……그러니 기왕 돌봐 주던 터에 그런 수가 없어서 내 돈 한푼 안받고 생겨곮에 있는 우리 논 서마지기를 자네에게 줄테니 이 의리를 잊지나 말게……』

덕선 농민은 백 첨지의 이 말을 듣고 바로 "등치고 간 빼먹는" 악귀 같은 수작이란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보는 수가 없어 거문 논을 뺏기고 생겨곮 언덕바지의 매마른 논을 짓게 되였다.

거문 논을 차지한 백 첨지는 소작인 들에게도 안 내주고 직접 자기 집 머슴을 부려 농사를 지였다. 비료도 욕심껏 많이 사다 주었기 때문에 벼는 잘 되였다 그래 백 첨지는 이에 다『군수 아들』을 둔 덕이라 해서 무척 흐뭇해 하고 있었다. 그런데 호남 지방을 휩쓸은 큰 장마가 져서 그만 거문 논도 벼 한 포기 안남고 깡그리 꽈여 내려갔다.

그러나 덕선 농민의 생겨곮 천수답은 비가 많이 온 덕분으로 그 어느해 보다도 벼가 걸찌게 자랐다.

하루는 백 첨지가 덕선 농민을 찾아와서 상냥스런 어조로 말했다.

『덕선이! 인제는 살게 됐네……저번날 우리 군수 아들이 집에 다니러 왔길래 내 자네 형편을 말했더니 경찰 서장님과 상의해서 거문 논을—그 자네 논의 수득권을 말일세……도로 회복시켜 준다고 했네! 그러니 인제부터는 그까짓 생겨곮 논에선 아여 손을 떼게나……』

『손을 떼라니요? 아니 지금에 와서 죽도록 다 농사 지여 논 것을 뺏고선 그 냇바닥 같이 씻겨 나간 것을 되물리자는거요?』

『허— 그사람 또 불온한 말을 하는군…… 하느님이 찬 노릇 아닌가……나라에서 토지 수득권을 얻은 농민으로서 그런 의리 없는 말은 말게, 나는 다 자네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네만 좌우간 제 땅은 제가 짓기로 하는 것이 마땅히거던……』

그후 며칠이 지나서 또 경찰서에 불려간 덕선 농민은 "군수 령감님의 각별한 배려에 의하여 거문 논의 수득권을 회복시켜 주는 바니 고맙게 알고 어서 농사를 잘 지여『토지 대금 상환곡』을 열성껏 바치라"는 훈계를 받고 나왔다.

이렇게 되여 생겨곮 논마저 도루 뺏기고 다 파먹은 금전판마냥 바닥이 들어난 거문 논 자리만 바라보게 된 덕선 농민은 살아 나갈 일이 막연하였다.

어느듯 벼 이삭도 팰 무렵이 되였다 백 첨지는 거문 논에서 골탕 먹은 것은 하느님이 분수 없이 비를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이라고 분해 하면서도 한편 권세가 좋은『군수 아들』덕에 생겨곮 논에서 봉창하게 될 것을 타산하고는 천만 다행으로 여겼다, 그러던 것이 뜻밖에도 큰 변이 생겼다 갑짜기 번성한 병충해를 입어 생겨곮 논의 벼가 모주리 쓸어지고 말았다. 심화가 발끈 뒤집힌 백 첨지는 가짜 농약을 미국제라 하여 비싼 값을 주고 사다가 뿌려도 보고 또 논 두렁에 잔뜩 음식을 차려 놓고 빌어대는 제사도 지내 보았건만 그만큼 손해만 더 났을 뿐이지 허사였다.

거문 논에서 골탕 먹은 것을 봉창은 커녕 거듭 생겨곮 논에서까지 아주 봉이 빠진 백 첨지는 등이 달아 안절부절 못하다가 또 덕선 농민을 찾아갔다.

『이 사람 나는 자네만 돌봐주다가 영 망했네 망했어……그러니 거문 논과 생겨곮 논에서 입은 손해를 자네도 반은 부담하는 것이 의리가 아닌가……』

『그게 무슨 당치 않은 말이시유……그 "군수 아들님이 여북이나 잘 알고서 했으리라고…… 지금에 와서 또 내탓을 하시요?』

『자네 어떻게 그런 의리 없는 말을 하나? 아 그래 하느님이 하는 일을 군수나 대통령인들 별 재간이 있느냔 말야……』

『제길할 백성들을 잘 살게 할줄은 모르고 이모저모로 못살게만 구는 재간이 다 의리로구만……』

『에이! 천하에 배은망덕을 해도 분수가 있지 도무지 의리를 모르는 놈 같으니 ……』

백 첨지는 덕선 농민의 악에 바친 얼굴을 힐끔힐끔 바라보며 씩얼거렸다.

쪽집개소식

김 동희

두가지 사건

밤이였다. 집 앞에 나와 바람을 쏘이던 한 상돈은 새로 사 온 빈대약을 방에다 뿌리고 나오는 안해를 보고 말했다.

『여보—곰고루 뿌렸소? 서뿔리 뿌리면 헛 일이야……』

『그만큼 뿌려 놓았으니까 효과가 있을거야요 어디 한두번에야 되나요 계속 뿌려야지요……』

안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다.

그러나 이 젊은 부처의 대화에 입을 옥물고 듣는 살기 찬 눈초리가 있었던 것이다.

순식간에 무장 경관들이 그 집을 포위하고 한 상돈 부처를 체포했다.

『이 년 놈들아! 어제 오늘 이틀밤이나 걸쳐 삐라를 뿌리고도 부족해서 계속 또 뿌리겠다는 거야……』

『정말 모를 말씀인데요. 우리가 뿌렸다는건 빈대약인데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너무 신경 과민이 되시여……빈대를 가지고……』

『무엇이 어쩨? 그럼 빈대가 경관들을 총동원시켰단 말이냐……에잇 망할 놈아!』

지난 7월 17일과 18일—전라남도 광주시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자" 라는 삐라를 산포한 사건이 있던 날 밤 광산동에서는 이러한『사건』도 있었다.

『의무』와『규칙』

충청남도 대전시 대흥동에 사는 신용보는 그 어머니의 사망계를 내러 시청에 갔다.

『여보시요 이 서류에『애국 복권』을 3매 첨부해야 됩니다.』

시청 계원은 서류를 도로 내밀면서 말했다.

『무어요『애국 복권』을 3매나? 아니 집에도 동에서 다섯장이나 강제로 쳐맡긴 것이 있는데유……』

『집엣 것은『국민의 의무』로 산 거지만 관청에도 무슨 수속을 할 적에는 수입 인지와 함께『애국 복권』을 첨부해야되는 "새규칙"이 있소.』

『허 그러니 어머니 장례 치를 돈도 없는데 게다가 또 복권을 3매씩이나 살 힘이 어디 있나유……』

『당신도 참…… 그러니까 다 생각해서 3매지 출생 신고나 혼인계에는 적어도 5매 이상『애국 복권』을 첨부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요……』

최근 리 승만 도배들은 30억환의『애국복권』을 이런 의무와 규칙을 적용하여 남조선 인민들에게 강매하고 있다.

비 국 민

경기도 인천시에서 음식점을 하는 장영기 집에 하루는 경찰서원 둘이 찾아와선 곰탕을 한그릇씩 시켜 먹고는 주인을 불렀다.

『령감! 알지 "달아두오" ……』

『나릿님…… 또 "달아두" 랍니까…… 정말 인제는 세금도 물께 안됩니다, 전당 외상만 빽히다 나니……』

『참 잔소리도 많소! 외상도 인제 마지막이란걸 알란말야, 래일부터 영업권 정지니까……』

『그…… 그게 정말이십니까? 나리들…』

『정말 아니고 서장님 명령인데. 그야 우린들 알겠소 령감 자신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 한 일을 생각하면 알 일이지……』

『지난번 선거 때 한 일이라니요? 저야 언제 리 승만 대통령을 반대했나요 그저 조 봉암 선거 위원들인지 무언지가 가끔 드나들기에 음식 그릇이나 팔았을 뿐이지요』

『그게 바로 비국민 행위이니까 영업을 정지시키는거야……여러말 말고 간판이나 떼 놓소!』

『그러니 외상 값은 무한량 달아두고 영업패는 당장 떼놓라는군…… 잘들하오!』

이와 같이 지금 남조선 각지에선 지난『대통령 선거』시 리 승만을 반대했거나 또는 반대파들과 사소한 관계만 있어서도 이런 저런 형태의『보복』을 당하고 있다.

불온 선동

서울시 랭천동에 사는 김로인과 박로인은 서로 허물없이 지나는 이웃간이였다.

하루는 박 로인 집에서 내외간에 말다툼 하는 소리를 듣고 김 로인이 싸움을 말리려고 갔다.

『아니 늙은게 미쳤나! 곪어 죽게 된 판에 무슨 전쟁이야…… 그래 전쟁을 하지 않고선 함께 평화적으로 살 수 없단 말야?……』

김 로인은 일부러 큰 소리로 내여 롱조로 말했다.

그런데 이때 굶주린 개마냥 냄새를 맡으면서 이골목 저골목을 싸 다니던 형사 하나가 김 로인의 이 말을 듣고 쫓아들어왔다.

『뭐라고 떠들어 대는거야』

『떠들다니? 난 조용히 살자구 말렸을 뿐인데요……』

『딴말 말어……"늙은게 미쳤나 무슨 전쟁이야"라고 했지! 그게 리 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을 반대하는 불온 선동이 아니고 무엇이여……』

『아니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했거늘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살라고 한 것이 불온 선동이라면……그래 남의 부부 싸움에 물고 뜯고 차라고 부채질을 해야 하는가?』

『어쨌던 리 대통령을 욕한것으로 된단 말야……』

별로 할 말이 없게 된 형사는 김 로인에게 억지말을 써가면서 행패를 부렸다.

박승히 그림

—백성들이 못살겠다고 불평이 많은데 그대책은……

—이미 작성된지 오래요!

갖은 발악을 다해서 잡아 당기려 하지만……

…낭떠러지는 바로 눈앞에— 홍종호 그림

수에즈 운하

김 헌석

브라질, 아르젠틴, 칠리, 페루 등 다 같이 독립 국가들이언만 백악관 사람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이 나라들을 『아메리카의 뒷뜰』이라 부른다.

또한 홍해로 해서 인도양과 지중해를 련결시키는 수에즈 운하—대서양과 인도양의 항로를 반으로 단축 하는 수에즈 운하의 관문인 포트사이드, 이 항구를 영국 『신사』 들은 『영 제국에로 들어가는 대문』 이라 부른다.

홍해 량측에 있는 나라들 애급을 필두로 하여 예멘이며 사우디 아라비야며 에티오피아 등 나라들이 모두 동방 인민들의 나라들임을 어떻게나 변경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포트사이드는 삼척 동자에게도 명백한 애급의 항구다.

기름진 나일 강반 란만한 고대 문명을 이야기해 주는 피라밑이나 스핑스가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쌓아 올린 것이라고 미 영 『신사』들은 말하려는가? 또 유크리드 기하학이 하버드 대학이나 캠브릿지 대학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하려는가?

하긴 아르푸스 산맥이나 남 북극도 아메리카의 방위선이라 서슴없이 말하는 미 영 『신사』들이다.

아르푸스나 남 북극에 비하면 매우 가까운 거리의 라틴 아메리카나 포트사이드를 자기 집 대문이나 뒷뜰이나 차고 유쾌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그들의 론리로 따지면 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들의 대문』을 진짜 집 주인이 차지해 나선데로부터 발생하였다.

포트사이드의 영 해군 장교 구락부 옥상에는 대영 제국기가 아니라 애급 국기가 휘날리게 되였다.

석유나 금강석으로 눈부신 아라비아 반도, 목화송이 구름처럼 피여 오르는 광대한 나일 강반, 포도송이 한 짐 무게로 맺치는 메소포타미아 평원……

이 락원에 사는 인민들이 『젖소』노릇이나 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 갔는바 지중해 함대가 포문의 수풀을 한꺼번에 일궈세운다 하더라도 신선한 아침의 정기 나는 눈'동자로 자기들의 양양한 앞길을 내다 보고 있는 인민들을 놀래울 수는 없다.

자기' 조국 땅을 흐르고 있으며 십여 만명 자기 동포들의 류혈의 대'가로 건설해 놓은 운하를 애급 인민들이 『이 운하의 주인은 우리다』하고 나섰는데 영, 미, 불, 『신사』 들이 노기 충천이다. 애급의 낫세르 대통령이 언제 한번 런던의 집 한채 거져 달란 말 한 일 없거늘 영국 『신사』 들의 노발 대발이 어인 일이며 미 불 『신사』들의 신경질 또한 어인 일이뇨?

수에즈 운하 회사 사장의 봉급 주머니가 달아 난다 해서 위엄있는 영, 미, 불 참모 본부가 떠들석이라네……

수에즈 운하 회사의 그 달콤한 꿀단지를 위하여 3군을 출병시키자는 것이다.

사태는 매우 창피하게 되였다. 군사비 념출을 위해선 자국 인민들의 말라빠진 두 어깨에 수억만 딸라의 무거운 짐 지우기를 추호도 꺼려하지 않는 자들이 한개 회사의 리윤 주머니를 위하여 세계 렬강급의 무력을 동원해야 한단다. 그러나 애급 인민들은 자기들의 스핑스나 피라밑을 사랑하는 그 긍지로 수에즈 운하에 휘날리는 애급 국기를 사수할 결의로 충만되여 있다.

자기 조국땅을 사수하려는 애급 인민들에 대한 류혈의 강요는 아랍 련맹의 모든 나라 인민들을 궐기케 하리란 것을 미, 영, 불 『신사』들은 각오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는가?

그렇다! 수에즈 운하를 메꿀 수도 없는 노릇이며 잉글란드섬으로 떠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수에즈 운하는 자유로운 애급 인민의 행복과 함께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대 인도양과 지중해를 련결하여 영원토록 푸르고 푸르게 흐를 것이다.

나오보로트 씨

두 신문 기자 뻬뜨로브 동무와 나오보로트씨가 카페 식탁에 마주 앉았다.

—훌륭한 날이로군!

—나오보로트씨가 말한다.

—얼마나 맑은 하늘이요? 그렇지 않소?

—네 좋은 날씨로 변했습니다.

뻬뜨로브 동무가 대답한다.

—당신은 좋은 날씨로 변했다고 생각합니까? 정치 정세를 암시해서 입니까? 그러면 나는 찬성 못하겠습니다. 아주 싫은 날씨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겠지요, 나오보로트씨

—"어떤 사람에게"라니 무슨 의미요? 이것은 선전적 술책이로군요 다음엔 랭전을 일으킨다고 우리를 비난하겠지요…… 자 인젠 정치에 대해선 그만 이야기 합시다. 차라리 무엇이든 신선한 것을 마십시다.

—좋습니다.

—여보 급사 소—다수를 주오!

—나에게도,

—여보 급사 나는 달리 생각했소 레몬수를 주오!

레몬수—역시 나쁘지 않은 음료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나에게는 레몬수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차라리 위스키나 삐—루를 마시겠습니다. 여보 뻬뜨로브 씨 당신네 쏘련에는 삐—루가 있습니까?

—당신은 아직 위스키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괴상한 질문을 하는군요.

—당신들에게는 항상 삐—루가 있겠지요. 전반적으로 당신네게는 많이 있으니까! 당신들과 무역을 해야겠소,

—좋습니다! 당신네게는 그것이 퍽 유리할께요.

—또 선전을! 당신은 나를 설복하려 하지 마시오 무역은 필요 없습니다. 찬성 못하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도 씨끄럽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군비 경쟁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이야기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군비 축소에 대한 합의가 곧 달성 될께요,

—나는 반대하오,

—그런데 당신들의 일부 정치 활동가들도 역시 군비 축소에 대하여 떠들었지요, 그때 우리는 그를 만나볼 필요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 그들 자신이 이 제의를 거부하였소,

—그들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집니다! 나로서는 그들이 거부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군비 축소는 필요 없습니다 위험하니까요,

—누구에게 위험한가요? 인민에게요? 대포 공장 주인들에게요?

—전부가 이것은……이것은 바로……여보 위협을 그만 하십시요!

—아니 어떤 위협을?

—당신들은 평화로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소! 당신은 해로운 선전을 하고 있소!

—군비 축소를 위한 선전이지요 당신도 역시 이러한 선전을 하시오!

—왜 우리 역시 평화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데……

—말로만 떠드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무엇이 필요 하오? 병력과 군비를 축소하는 것인가요? 당신은 그것을 칠만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아니요 그것은 칠만한 일이 아니요! 그것은 선전입니다. 우리 신문들은 무근거한 것은 아닌데……

—전적으로 옳습니다. 과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제발 암시는 그만두고 말하시요. 우리 신문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쏘련 사람들은 우리에게 불쾌한 일을 하려고 자기의 무장 력량을 축소하고 있다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다 알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나에게 보수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바로 우리 큰 신문은 쓰고 있습니다. 쏘련 사람들은 원하고 있는데……가만 있자 그들이 무엇을 원한다고 썼던가? 아 생각나오 축소하는 수단으로서 강화하려고 아니 그런게 아니라 강화하는 수단으로써 축소를 해 보려고 원한다고 아니 그런것도 아니요 이제야 바로 생각 났소 자기의 군비를 축소하는 수단으로서 군사적 위력을 제고 시킬 것을 원하고 있다고요 교활하게도 안출해 냈지요?

—축소하는 수단으로서 어떻게 위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어쨌던 나는 반대요 당신 말은 그러하지만 나는 그 반대요 선전을 버리시요.

이때 어디선가 옆에서 강력한 폭음이 울렸다고 그 지방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였다

—무슨 일이 생겼소?

나오보로트 씨가 고함을 질렀다,

—어째서 소동이?

그에게 대답을 했다.

—이것은 군비 축소 문제에 관한 실제적 제의를 "선전"이라고 떠드는 당신들의 시도가 다시 한번 큰 실패를 당한거지요.

예·그리고리예브

끄로꼬질 20호에서

(한동신 번역)

위태로운 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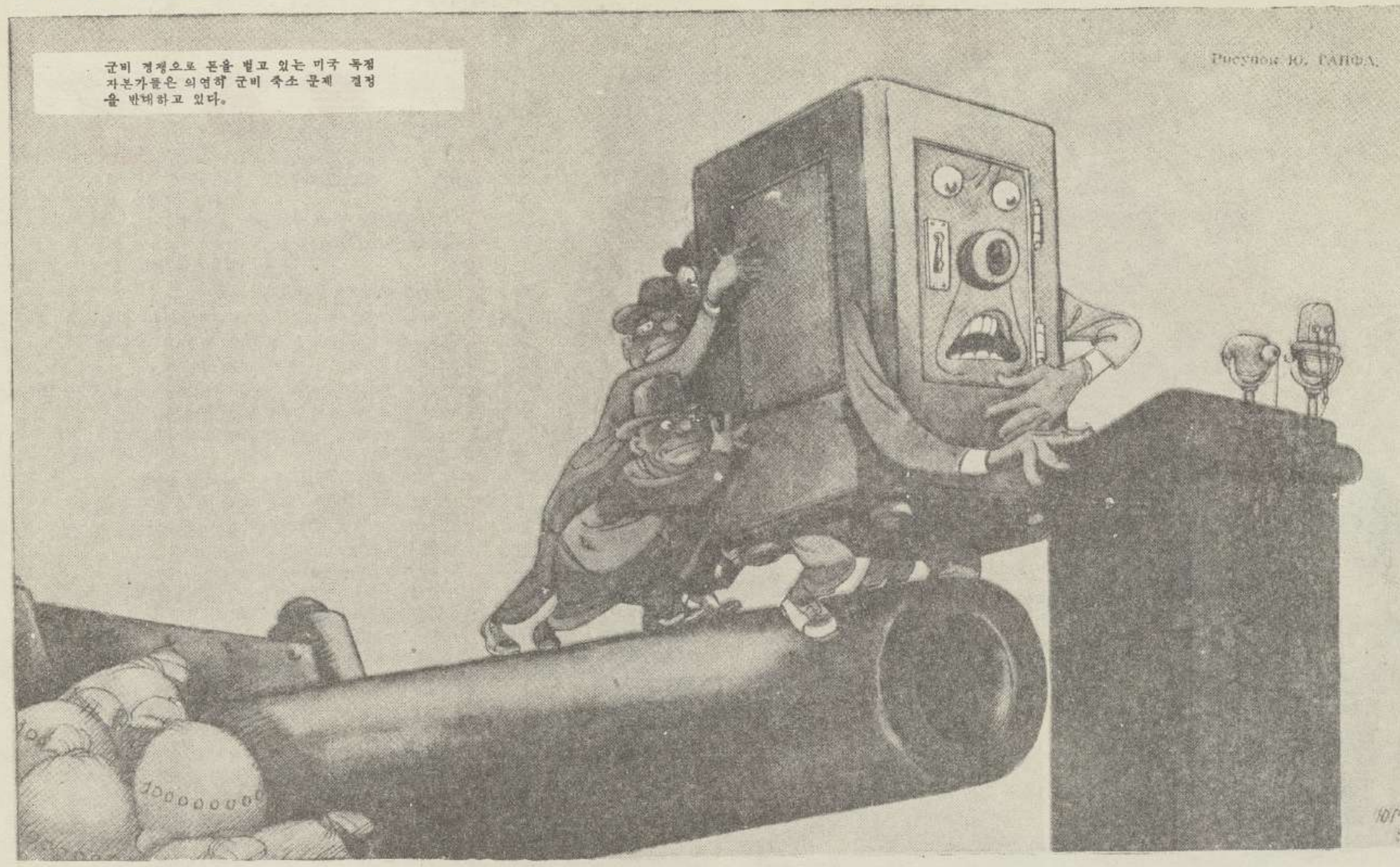
원광수 그림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무도회는

이렇게 끝날 것이다

КРОКОДИЛ—쏘련 '끄로꼬질'

쏘련 풍자 만화 잡지 "끄로꼬질" 1856, 16호에서 전재
그림 유 간파



—나는 무장 쁘로그람의 확장을 요구 합니다
이것은 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니까!

국제 유모어 소개

쏘련 풍자 만화 잡지 "끄로꼬질" 1956, 17호에서 전재
그림 브·에피모브

괴뢰—파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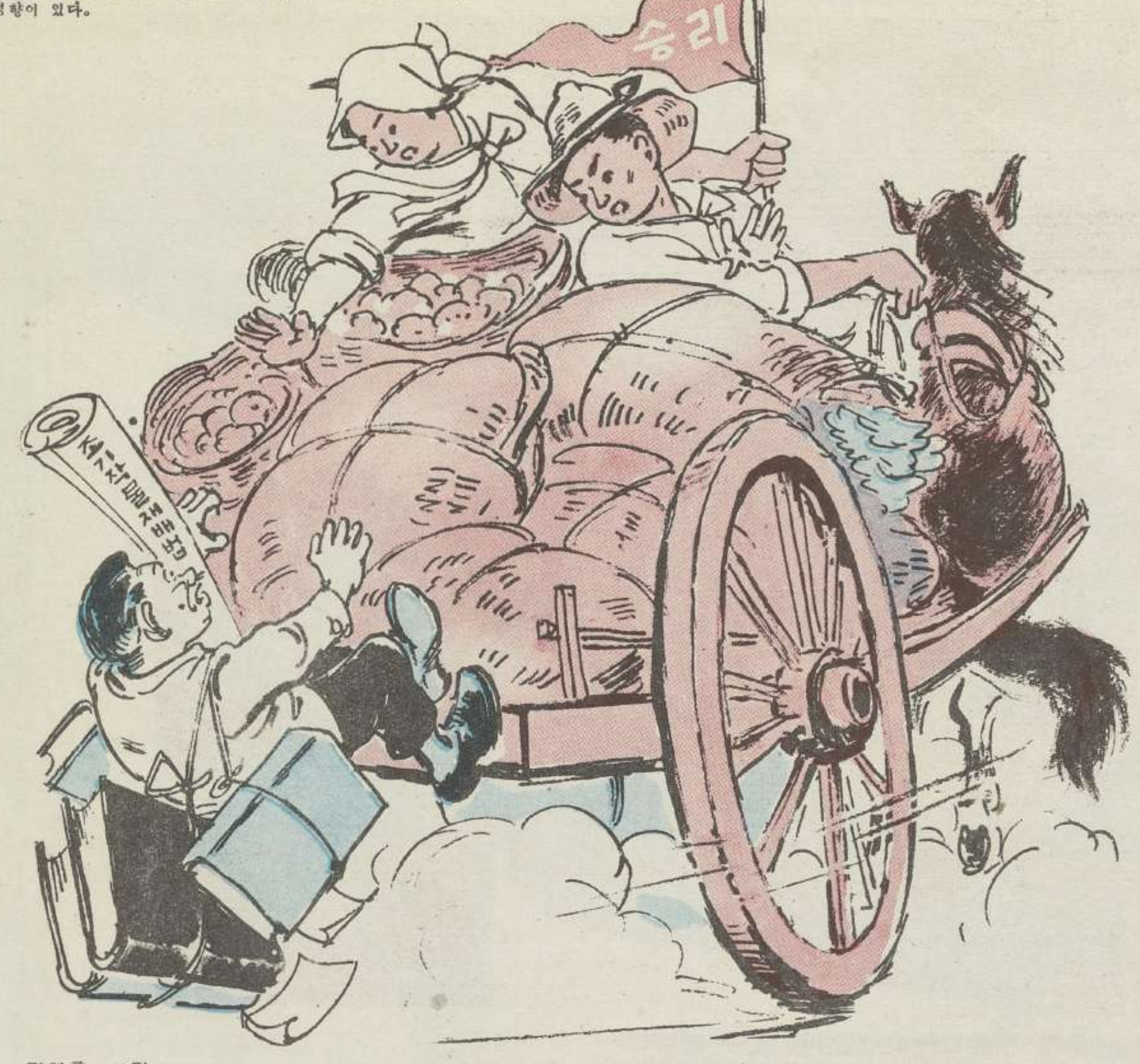
남쪽에서 시들었으니 이들을
북쪽으로 옮겨 놓아야지……

쏘련 풍자 만화 잡지 "끄로꼬질" 1956, 14호에서 전재
그림 꾸꾸리닉스

양쪽 메달……

일부 지방의 선전.일'군들중에는 시기와 대상에 적합한 선전 사업을 제때에 진행하지 못하고서 형식적으로 회수만 채우려는 경향이 있다。

행차 뒤에 라팔



리영춘 그림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조기작물 수확에 대한 강연을 하러 가는 길인데 좀 타고 갑시다
—보시다 싶이 조기작물 수확사업은 다 끝났으니 다음번에나 제때에 오시요

탑조등

장 필순

명철한『결론』

"사업을 질서 있게 하자면 조합 관리 체계를 철저히 조직 해야 하지"

이러한 관리 위원장의 주장에 따라 황주군 구포리 홍룡 농업협동 조합에서는 실정에 맞지도 않는 생산 지도원, 창고원, 그리고 부기장에 또 부기원 무려 6명의 유급 관리 일'군들을 조직 구성하게 되였다。

그리고 보니 창고에 곡식을 거둬드릴 날은 까마아득하고 창고원은 빈 창고만 지키고 앉아 있게 되였으니 그가 책상 머리에 엎디여 머리방아만 찧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

—어, 이 친구가 땀방울 흘리기에 수고하누만

굵은 목소리에 놀래 깨여난 창고원은 관리 위원장이 자기 책상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얼굴을 붉히며 이마의 땀을 씻었다。

—엎디여 자는 것이 김매는 것보다 더 힘든 모양이군。

—예 빨리 창고에 곡식이 들어와야겠는데요

—우리 조합이야 벼 농사 뿐이니 아직 멀었지 그런데 여보! 생산 지도원 동무! 뭘하고 있소

—네 저 통계원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통계 사업이 그렇게 바쁘오?

—아뇨, 가만히 앉아 있기도 뭣해서……

—암 그래야지 일감이 없을 때는 서로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러니 부기원이 부기장을 방조하는 것두 좋은 일일게구 하여튼 아직 기본적으로는 자기 사업에 들 착수할 때가 못되였으니 서로 방조해서 되도록이면 일을 헐하게 하는 것이 상수지

한가히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관리 일'군들의 사업 정형을 "료해"한 뒤 위원장은 이렇게 명철한『결론』을 내렸다。

지금 김매기에 한사람의 여유 로력이 아수운 때 사무실에서 하품만 쉬는 관리 일'군들을 작업 현장에 동원시켜 조합원들을 방조해 줄데 대한 생각을 관리 위원장은 영영 생각에도 없는 모양인 듯……

천만 다행

이미 오래전부터 선반과 완성 직장에서 자기들의 작업에 긴요하게 쓰이는 쇠자를 지도부에 수차 제기했으나 이 문제는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아마 우리 공장엔 현품이 없는 모양이야

—조화거던. 다른 공장에선 이미 오래전에 성으로부터 철자를 배정 받았다는데……

—성에서 빠트릴 수도 있는 문젠데 그러면 성에다 제기해 봐야할 것이 아닌가?

오늘 래일하고 기다리고 있던 로동자들의 이 의견에 좇아 지도부에서는 철자 신청서를 성에 제출하게 되였다. 결과 성에서는 오래전에 마동 쎄멘트 공장으로 철자를 배정해 보냈다는 통지가 왔다。 이때도 지도부에서는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하면서 허둥지둥 대장을 들춰보니 분명히 현품은 창고안에서 썩고 있는 것이 판명되였다。

다행히도 그 현품이 쇠로 만든 것이여서 부패하지 않아 천만다행

그래도 기계화

—축력 제초기를 사 가더니 그래 좀 써보기나 했나?

—그럼 우리야 매일 쓰고 있지

—제초기의 성능이 어떻던가?

—우린 한대로 하루에 7—800평을 제초하고 있지

—뭐?! 7—800평을! 이상한데 우린 매일 2천5백평을 낚아 제초하고 있는데

—그거야 소가 끌겠지

—아니 그럼 온파읍에선 뭘로 하나?

—사람이 끌지

—왜 축력이 없나?

—원 별소릴, 소가 모를 다칠까봐서……

—여보게 그렇게 할 바에야 호미로 매는것이 훨씬 더 빠르겠네

—그래도 기계화거던

—?!

록음실

리 운봉

공동 주택에서

오늘은 22일. 청소의 날이다,

아빠트 2층에 사는 김 춘실은 깜빡 잊었다가 검병반장이 올 무렵에야 오늘이 청소일인 것을 알고 불야불야 아빠트 마당을 쓸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불이나게 방을 쓸었다。 그러나 그는 쓰레기를 버리며 내려 가기가 싫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바람이 불어왔다,

(옳지!)

그는 쓰레받기를 들고 창가로 갔다。

(여기서 버려두 우리 마당엔 안떨어질 테니까)

그는 누가 보지 않는가 사방을 둘러보고는 얼른 쓰레기를 내 던졌다。

이윽고 검병반장이 나타났다。

『방 청소는 잘 했는데 마당은 왜 안쓸었어요?』

『왜 안쓸어요』

『가 보세요』

창가에 가 본 춘실은 깜짝 놀랐다。 자기가 깨끗이 쓸어 놓은 곳에 쓰레기들이 가뜩 널려 있지 않는가!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내버렸어!』

그는 와락 성을 냈다。

그러나 자기가 던진 쓰레기들이 옆집 아빠트 마당에 널려 있는 것을 본 춘실은 귀밑이 달아 올랐다。

공원에서

오늘은 일요일, 날씨도 좋다。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즐겁게 휴식하려고 모란봉 공원으로 올라온다。

자기들의 로력으로 이루어진 꽃밭들이며 나무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얼굴은 모두 행복스러운 빛이다。

한쌍의 젊은이가 꽃밭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꽃밭을 본 그들은 실망하였다。

『고운 꽃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꺾어 갔구만』

남자는 원망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는 다음 꽃밭으로 애인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황홀하여 한참이나 꽃들을 바라보았다

『야! 참 곱구나!』

처녀는 꽃에 막 반하여 제일 고운 백일홍 몇송이를 꺾었다。

그때 남자가 말했다,

『다음번엔 다른 꽃밭에 가야겠소』

『왜요? 여기가 좋은데요』

『다음번엔 이 꽃밭이 오늘처럼 아름답지 못할꺼니까요』

『영리』한 사람

뻐스가 와 멎었다,

그러나 뻐스는 이미 만원이어서 몇사람 태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그러자 곁에 섰던 한 청년이 날쌔게 뻐스 문에 매달렸다,

『여보세요 내리시라요』 차장의 말

그러자 영리한 이 승객의 말

『여보 손이 끼웠소!』

그래서 그는 비비대고 차에 오를 수 있었다。

허나 제딴에는 자기가 날쎈듯이 생각되지만 그는 얼마나 교통 질서와 도덕을 물란시켰는가는 리해하지 못하는 사람……

인공적인 장애를 제거하라!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기계화를 위한 창의 고안을 말로는 내세우면서도 그 조건을 보장해 주지 않고는 창의고안이 잘 되지 않는 원인을 "로력 부족" "기술 부족"이라고 하며 무제한한 기계 보유로써 기계화를 대신하려고 하고 있다。

원광수 그림

천편 일률

송용남 그림

아직 일부 작가들 가운데는 현실에 대한 깊은 연구가 부족함으로 창작 사업에서 도식주의와 류형성을 극복 못하고 있다。

강창휘 그림

파리 1—야단 났구나, 우리를 다 죽이겠대
파리 2—일없어, 이 사람은 말 뿐이야

일부 방역 일'군들 가운데는 방역 사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선전은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방역 사업을 하지 않으며 또 선전과 지시만 하고 실지 구체적인 예방 사업은 조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직장과 가정에서

김 순화

몇 년 전에 정 창훈 동무는 최 순옥 동무와 결혼하였다。 그때만 하여도 창훈 동무는 순옥 동무의 의사를 존중히 하여 둘이 다 직장 생활을 하기로 하였으나 결혼 후 그는 태도가 일변하였다。

『여보! 당신은 나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소!』하고 그는 순옥 동무가 직장에 나가는 것을 투덜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여 순옥 동무는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였다。

지난 7월 29일이였다。 좀 늦게야 집에 돌아 온 그는 어지간히 뽐내는 어조로 말했다,

『여보! 나는 오늘 우리 직장 남녀 평등권 발포 10주년 기념 직장 보고 대회에서 축사를 했소!』

그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순옥 동무는 저으기 의아적은 생각도 들기는 했으나 한편 기쁘기도 하였다。

『그래요 참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리 녀맹 보고 대회에 가야 되겠는데 수고스럽지만 어린애를 좀 봐 주세요』

『아니 무얼? 당신을 위해 날보고 집에서 어린애를 보라는거야……』하고 말한 그는 휙 나가버렸다。

△ △

『자녀들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선 가정에서 일상적인 교육 교양 사업에 과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영길이 아버지가 학부형 회의에서 한 토론이였다。

그 후 영길이는 방학이 되여 선생이 내 준 숙제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며 공부했다。

『아버지! 이것 좀 일러주어요……』

『얘—나는 일이 바빠서 그럴 새가 없다!』

대개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영길이는 숙제를 다 못 푼채 신학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아버지! 선생님이 통신부에다 아버지 도장을 찍어 오래요』

『음 그래— 옛다 네가 찍어 가라!』 아버지는 도장을 내 맡기고 누웠다。

그 후 영길이 담임 선생은 영길네 집에로 가정 방문을 하였다。

『저— 영길이의 성적이 대단히 나쁜데요……』

선생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영길의 아버지는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말했다。

『아니 영길이의 성적이 나쁘다니요? 그럴 리가 없겠는데……』

△ △ △

『우리가 전력을 절약하면 절약할 수록 그만큼 공장의 생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리 문갑 동무는 직장에서 가끔 전기 절약을 할데 대하여 선동적인 말을 했다。

『여보! 어째 양복 바지 주룸이 이꼴이야……』

『다리미가……』

『다리미는 전번에 사오지 않았소?……』

『그러나 아직 전기 신청을 못했는걸요』

안해가 좀 난처해 하며 나즉히 말하자 그는 대번에 성을 내여 투덜댔다。

『참 딱한 말 다 하는군! 그쯤 더 쓰는건 문제도 안된단 말야! 우리 나라에 얼마나 전력이 많다고……』

편집 위원 장 진 광(책임 주필) 김 선 낙 박 기 성 송 용 남
발행소 활 살 (시사 만화 잡지)사 인쇄 1956. 8. 10. ㄱ—70609
인쇄소 미 술 인 쇄 공 장 발행 1956. 8. 15. (값 50 원)

줄을 늘일 수록 죽을 날은 가깝다

미제가 길러낸 벌레 리 승만은 조선 인민의 민족적 명절인 8·15 해방 11주년을 앞두고 남조선 전역에서 경계엄령을 실시하였다. 인민을 두려워하여 삼엄하게 늘여 놓는 이번 계엄망은 리 승만 자신을 더욱 고립화 할 것이며 자신의 멸망을 더욱 더 촉진할 뿐이다.

장진광 그림